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순수와 열정 그리고 고뇌의 시대



유영표 서울대 인류학과 68 학번. 매경비어스 가이드 대표, 7동지회 회장, 민주화운동공제회 창립준비위원장, 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현)

긴급조치 시대는 순수한 열정과 인간적인 고뇌가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다. 삼선개헌 때도 그랬고 정치적 상황이 비교적 좋았을 때는 학생운동을 정치권 진출의 경력쌓기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긴급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거의 남지 않았다. 그나마 순수하게 변혁을 꿈꾸며 사회과학을 공부했던 사람들도 민청학련 등 긴급조치 초기 몇 차례의 데모를 통해 죄다 구속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변혁을 얘기하는 세력들이 사회과학도가 아니라, 문학을 하고 야학을 지도하고 탈춤을 추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목숨 걸고 데모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철저한 보도통제 속에 독재에 항거한 영웅이 되기는 커녕 재판정과 교도소 기록에만 그 이름이 남아있는 세대가 바로 긴조 세대이다.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와서도 먹고사는 평범한 행위조차 제약을 받았다. 누구나 누렸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한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게 바로 긴급조치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던 동료들과 후배들의 운명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와 관련한 학원 탄압은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정권이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며 3선개헌을 강행하자 학원에서는 곧바로 '3선개헌반대투쟁'이 일어나면서 부분적인 징계가 이뤄진다. 곧이어 1970년 교련 교육이 실시되면서 학원병영화가 획책되었고 이는 3선개헌과 맞물려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의 첫 단계로 여겨졌다.

1970년 교련반대투쟁을 주로 했던 학원 내 민주화운동은 1971년 들어서면서 공명선거 캠페인으로 양상이 바뀐다. 1971년 4.27 대통령선거와 5.25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참관인운동이 전개됐다. 이 가운데 박대통령이 총통제 연구를 위해 대만에 사람을 보냈다는 소문이 돌면서 서울대총장을 지낸 유기천 교수가 '박정희 총통제 획책 음모'를 강의 중에 얘기했다가 결국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 미국으로 쫓겨나는 일도 생겼다.

선거를 한 해 앞둔 1971년은 역사적 사건이 많은 해였다. 8월에 실미도 사건이 터지고, 청계천 강제철거민이 집단이주한 경기도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시)에서 민란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해진 속에 심지어 혁명 전야의 분위기가 감지될 지경이었다. 가을엔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부패추방운동이 전개되었고 학원에서는 전국적으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3선개헌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꼈던 박정희 정권은 71년 10월 15일 위수령을 선포했다.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2백 명 가까이 제적시키면서 이때부터 소위 학생징계의 인플레가 시작된다. 한편 74년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권이 사형과 징역의 인플레를 시작한 계기라 할 수 있다.

1971년 대선과 총선이 끝난 직후인 5월 31일에 서울대에 대량징계가 내려지는데 나도 이때 자퇴하게 된다. 자퇴 안 하면 영구히 제명한다는 협박 속에 부모님을 불러서 자퇴서를 쓰게 했는데 사실상의 제적이었다. 당시 일간지 사설 제목으로 '서울대 무더기 징계가 내걸릴 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사건으로 서울대만 18명이 징계를 당했다. 나는 징계 직후 정보기관원들을 피해 다니다가 6월 말에 붙잡혀 단독으로 강제징집됐는데 논산 연무대에 입소하던 바로 그 날 우연찮게도 7월 1일 박정희의 3선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던 "이화여대생들의 대통령 찬가가 있겠습니다"라는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군대에서는 수색중대에 근무했다. 중간에 사단 사령부 법무참모부로 갔는데 보안대에서 사령부 근무 부적격자라고 해 다시 보병으로 갔다. 74년 4월, 제대를 1개월 앞두고 민청학련 사건이 터졌다. 보안부대에서 찾아와서 “민청학련 수배자 이철을 아느냐”고 했다. 당연히 모른다고 했다. 내심 ‘아는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극도로 위축됐다.

재입학 형식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된 75년은 서울대가 학생운동사 측면에서 일대 전환기에 있었던 해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캠퍼스가 관악캠퍼스로 대부분 옮겨오면서 각 단과대학의 공동투쟁이 가능하게 됐다. 봄부터 학내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8일,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를 씌운 이른바 ‘인혁당’ 관련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고 그 다음날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4월 8, 9일은 황사가 매우 심한 날이었다. 장독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그 자국이 선명하게 길을 낼 정도였으며 황사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어 암울하고 어두웠다. ‘박정희가 드디어 막바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 뒤 4월 11일, 농대생 한 명이 할복자결했다는 소문이 가슴을 찢었다. 12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운명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이름이 김상진이고, 복학생이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과 ‘양심선언’을 다 읽어갈 즈음 등산용 칼로 할복했다고 한다. 침통한 추모 분위기가 학교를 감싸는 동안 농대에 이어 관악캠퍼스 전체와 공대, 의대에 잇따라 휴교령이 내려졌다.

휴교령 이후 정국은 더욱 경색됐다. 4월 30일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패퇴, 철수하면서 국내에는 공안 분위기가 강화되었고 5월 13일에는 드디어 긴급조치9호가 발동되었다. 긴급조치9호는 당시까지 볼 수 없었던 매우 교묘한 조치로 모든 조직과 직장 내에 연대책임을 지워 반정권운동을 억압했고 반유신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도를 금지했다. 1호에서 4호까지는 구속, 사형 등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국민을 겁먹게 하려 했다면, 9호는 운동세력과 국민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였다. 사전검속이 강화돼 몇 명만 모여도 끌려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75년 봄, 개화하면서 인혁당 사형 때까지 연이은 시위로 제적되고 구속된 서울대생이 일

백여 명에 달했다. 당시 서울대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은 사회과학서클들이었는데 이때부터 시위 주도세력이 바뀌기 시작한다. 봄부터 계속된 시위로 운동권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노출돼 운동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새로이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전혀 뜻밖의 곳이었다. 할복 사건 후 “시신이 가족 몰래 화장되고 암장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신은 없지만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학내에 팽배했다. 이때 가면극회(탈춤패), 문학회, 야학문제연구회 등 인문대와 사범대의 세 서클이 ‘김상진 열사 장례식’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왔으며 복학생인 나와 유상덕 등에게 시위방법 등을 자문해 왔다.

긴급조치9호가 내려지던 5월 13일 오후, 나는 광화문에서 문학회의 이영창(인문대 철학과 4학년)과 야학문제연구회의 박연호(사대 교육학과 3학년)를 만난 뒤 삼선교에서 복학생 모임과 합류했다. 약속장소에는 서울대내란음모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수배돼 장기도 피 중인 김근태 선배가 나와 있었다. 나머지는 채광석(작고), 채만수, 이호용, 유상덕 등 ‘68·69학번 그룹’이었다. 문학회에서는 조시와 조사, 야학문제연구회는 장례진행을 준비하고 가면극회는 만장과 장례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다. 복학생들은 시위의 방법에 대해서 자문하고 재학생들의 결정대로 따르기로 했다. 당시 대부분의 복학생들은 “10분도 안 되어 모두 끌려갈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으나 결국 박연호의 말 한마디에 대세는 굳어졌다.

“죽은 사람도 있는데 감옥 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5월 14일, 서울대에서 안보궐기대회가 열렸다. 예비군을 동원해 서울대생이 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다음날 15일에는 학교 문이 열렸다.

드디어 5월 22일, 얼굴이 이미 드러나 있던 복학생들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맡기로 했다. 수강편람을 뒤져 2~3백 명이 모이는 대형강의실을 찾아갔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5분 정도 남겨두고 쪽지에 ‘김상진 열사 장례집회, 도서관 앞 계단, 낮 12시 10분’ 등을 써서 뒤에서 앞으로 돌렸다. 또 관악캠퍼스의 새 건물들에는 각 층마다 화재비상벨이 있는데 각 동을 오가며 벨을 눌러댔다. 시위진압경찰이 진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평소에는 각 파출소에서 차출돼온 경찰이 수백 명 되었는데 모두 각 파출소로 원대복귀한 상태였다. 시위라곤 처음 주도해보는 사람들과 서클들인데도 그래서 오히려 정보가 전

혀 안 새어나간 탓이었다.

벨이 울리고, 그 다음엔 팽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퍼지고, 일이백 명 정도 모이니 플래카드가 뿔뿔이 찢어 스피커가 켜지고, 5백에서 1천 명까지 모이니 이제 제어가 불가능해졌다. 한 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면서 캠퍼스 안을 다함께 돌았다. 두 시간 남짓 되었을 때 경찰기동대가 나타났다. 내자동 시경기동대였다. 몇 백 명이 됐건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침이 있었던지 도서관에서 나오는 학생들까지 무조건 잡아들였다. 긴급조치9호가 내려진 지 열흘 만에 일어난 세칭 ‘오돌돌 시위’는 그렇게 막을 내리면서 박정희를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신문을 보니 조그맣게 치안본부장과 시경국장, 남부경찰서장 ‘직위해제’ 라는 인사발령 기사가 났다.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확대개편한 뒤 4개월 만의 일이다. 3년 임기의 서울대 한심석 총장은 연임 3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오돌돌 시위로 나와 김근태, 채만수, 유상덕 등이 전국수배됐다. 13일 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수배돼 김근태를 제외하고는 해가 바뀌기 전 모두 체포됐다. 나도 7개월을 도망 다니다가 75년 12월 초에 체포됐다. 사건 직후 확실한 배후조종으로 찍은 나와 유상덕을 체포해 민청학련처럼 조직사건으로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삼사 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단순한 학내사건으로 축소해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당시 재판 받을 때의 일이다. 오돌돌 사건의 나와 유상덕, 장만철(장선우), 황선진 등과 경희대·서울대 연합시위 미수사건으로 나중에 들어온 원혜영, 박인배, 노주현, 신현태 등이 재판정에 함께 서게 됐다. 마침 다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가 들어올 때 기립했다가 ‘착석’ 하라고 할 때, 앉지 않고 애국가를 불렀다. 재판장이 앉으라고 손짓하고 교도관도 강제로 앉히려 했지만 여덟 명이 1절을 끝까지 다 불렀다. 애국가를 다 부르고 자리에 앉으니 그제서야 판사가 땅땅땅 하고 재판봉을 내리치며 “본 재판은 피고인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 대통령도 재판장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며 “이제부터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켜 달라”고 했다. 재판봉을 내리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른 것은 개정 전의 행위로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선포였다. 그가 바로 당시 주심인 이영구 판사다. 그는 재판하는 내내 미안한 표정으로 얼굴을 푹바로 들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유신을 반대한다. 유신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 체제이다. 유신정권이 우리를 반체제라고 하는데 박정희정권이 반체제이지 우리는 거꾸로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내가 위와 같이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이영구 재판장은 내내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우리에게 앞서 재판 받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으로 7년 구형에 4년을 선고받은 데 반해 나와 유상덕은 7년 구형에 1년6월을 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잘못된 실정법 아래서 고뇌하면서 이영구 판사는 내 재판 뒤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대 김윤수 교수(현 현대미술관장)가 김지하 양심선언문 배포로 재판 받을 때도 주심이었는데 선고유예를 내렸다. 또 양길승(현 녹색병원장)의 재판 때도 긴급조치9호와 반공법 위반으로 검사가 10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리고 수개월 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났다가 변호사 개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수선한 세월을 살면서 아직껏 한번 찾아뵙지 못한 게 늘 마음의 빛으로 남아있다.

‘오돌돌’ 동료들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순수한 열정을 간직하고 각자 사회운동, 시민운동, 참교육운동 등에 헌신해 왔다. 전교조 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했고, 민족문화과 민중문화 운동에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운동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75년에 새내기였던 박원순 변호사가 우리나라 대표적 시민운동인 ‘참여연대’를 건설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온 몸을 던져 나섰지만 뜻을 펼치지 못하고 먼저 간 채광석(87년 작고), 김도연(93년 작고) 형이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